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 가정 영아의 양육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Present Status,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Raising
Children under 3 Years Old Enrolled at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최호정¹ 조윤경²

Ho-Jung, Choi¹ Youn-Kyung, Cho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parenting characteristics,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d children under 3 years old, in order to develop their supporting resources.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7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d their young children enrolled at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in Gyeonggi Do. The interview data transcribed were analyzed using the successive contents analysis, and led to 4 themes and 12 sub-themes.

Results: First, the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married without understand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econd, the multi-cultural mothers didn't properly respond to their children's needs in interaction and language aspects. As a result, the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an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gave help to them. Third, in the view of the difficulties facing mothers, parenting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information concerning child education, the biased burden of parenting, and the different parenting values of Korean families were all expressed by the mothers. Fourth, regarding support needs, providing individual professional support for children and child-raising support for mothers, customized language and employment support for mothers and parenting education for fathers and family education on multi-culturalism are needed.

Conclusion/Implications: Suggestions for decreasing the difficulties facing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d children under 3 years old were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having children under 3 years ol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difficulties, support needs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성서대학교 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의 수정, 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시립풍동어린이집 보육교사

² 교신저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e-mail : ykcho@bible.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담론 및 정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선희, 2016). 2008년부터 정부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고,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 정책들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이미 2006년 4월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였고,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오혜정, 2015). 여성가족부(2016)의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구는 278,036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2%를 차지하며 2012년 조사(266,547 가구)에 비해 4.3%가 증가한 수치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197,550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이하(61,625명)는 31.2%를 차지하고 그 중에 미취학 아동(만6세 이하)은 116,068명 58.8%로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6).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결혼과 함께 한국 사회에 진입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적 배경과 다른 자녀 양육 방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소희, 박영례, 김애림, 박성은, 2014), 특히 자녀 교육에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복순, 2009; 이선미, 이경아, 2010).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자신들도 한국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한 충분한 언어적 자극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으며(안원석, 2007), 자녀와의 안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해 줄 수 있는 영아의 언어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순화, 박선희, 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영아기부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에게 양육되는 상황에서 언어발달 지연과 낮은 학업성취도,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문제 등으로 발달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보건복지부, 2008), 우리나라 일반 영유아들에 비해 사회적, 정서적 발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권경숙, 봉진영, 2013; 전해정 등, 2007).

영유아기 시기 중 출생에서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아는 그 어느 때보다 발달속도가 빠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영아 시기에는 개개인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적절한 자극이나 교육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장혜성, 하지영, 서소정, 2007). 영아기 적절한 자극과 교육 환경 제공의 중요성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영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필요함도 시사하고 있다(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아기의 경험이나 환경은 이후의 신체, 사회, 인지, 정서발달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아기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영아기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노미향, 2008). 즉, 가정환경에서 맺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가정환경의 상호작용은 영아기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정민, 김지현, 정현심, 2011). 물리적인 양육 환경은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알맞은 놀잇감이나 책 등으로 구성되며 또래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영아에게 있어 부모와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미라 등, 2011).

가정환경과 함께, 영유아의 발달에는 사회적 환경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경험도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많을수록 또는 기관 이용기간이 길수록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태, 권영덕 2007; 정정희, 정민영, 김민정, 허경아, 홍의주, 2010).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 이용에 관한 조사(보건복지부, 2014; 교육부, 201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 중 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실제 교육 및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전혜정, 민성혜, 신혜원, 2009),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기관간의 연계 사업도 미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은영, 2015).

최근 다문화 가정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및 학습지도 교육, 사회적응 관련된 연구들(구영산,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2014; 김유리, 이현정, 2016; 김혜린, 한선경, 김영태, 2014;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2015; 조영철, 윤혜영, 최민지, 2013)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부모역량에 대한 부모 교육지원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박찬욱, 이은경, 2013; 양시내, 김우영, 김영옥, 2013; 조미영, 배지희, 2011; 한경남, 2012), 다문화 가정환경과 유아의 문해 능력 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성미영, 김정현, 박석준, 정현심, 권윤정, 2010; 이민주, 2015; 정민자, 윤선아, 201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 관련 연구(최은영, 2015)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 대상 면에서는 유아기 위주에서 다문화 가정의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강선자, 손수민, 2011; 노미향, 2008; 한경남, 2012)와 요구에 관한 연구(조운경, 2015) 등 다문화 가정 영아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 초기인 영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만을 대상으로 부모양육 환경과 영아 발달 상태, 또는 영아를 키우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영유아기 자녀 비율이 높고(행정안전부, 2016), 영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영아기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언어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대상이기 때문에 응답 내용이 제한적인 구조화된 면담 보다 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반 구조화된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곽금주, 2002; 성태제, 시기자, 2006). 면담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특히 관찰이 어려운 과거의 사건들이나 기억들,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이기도 하다(박혜준, 이승연, 2009).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 가정 영아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의 성립 과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영아의 발달 및 양육 환경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한국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영아를 키우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의 지원 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였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현재 다문화 영아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0~36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문화 어머니 7명이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사례 | 나이 | 국적 | 학력 | 결혼기간 | 자녀 | 수/ 순위 | 동거가족 | 거주지 |
|----|-----|------|-----|--------|------------|--------|----------------|-----|
| A | 41세 | 중국 | 대졸 | 9년 | 여자 16개월 | 2명/ 둘째 | 자녀 2 | 경기도 |
| B | 40세 | 중국 | 대졸 | 4년 | 남자 36개월 | 1명 | 남편, 자녀1 | 경기도 |
| C | 29세 | 베트남 | 대졸 | 2년4개월 | 남자 20개월 | 1명 | 남편, 자녀1 | 경기도 |
| D | 32세 | 필리핀 | 대졸 | 8년 | 여자 36개월 | 3명/셋째 | 남편, 모, 자녀1 | 경기도 |
| E | 28세 | 베트남 | 중졸 | 2년 6개월 | 남자 17개월 | 1명 | 모, 자녀1 | 경기도 |
| F | 46세 | 필리핀 | 대졸 | 17년 | 여자 36개월 | 4명/넷째 | 남편, 자녀4 시부모 | 경기도 |
| G | 24세 | 캄보디아 | 대중퇴 | 3년 | 남자 20개월 | 1명 | 남편, 자녀1 | 경기도 |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거주 결혼이민자이고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공통점 외 연령대, 국적,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등에서 각각 다양한 상황을 나타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면담 질문지의 항목은 문헌연구(이선미, 이경아, 2010; 정미라 등, 2011; 조윤경, 2015) 및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자 2인과 현장 경력 20년 이상의 석사 학위자인 보육전문가(연구 보조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문항은 ① 주 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기본정보, 한국에 오기전의 삶), ② 영아 양육현황(영아 발달적 현황, 발달적 자극 촉진, 반응적 상호작용, 사회적 정보, 가족적 정

보), ③ 영아부모의 어려움(자녀양육의 어려움, 개인적 어려움), ④ 지원요구, ⑤ 기타 로 총 5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범주 안에 1~5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으며 소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 구조화된 질문 형태로 구성하였다.

표 2. 면담질문지 내용

| 주 제 | 내 용 |
|------------------|--|
| 주 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정보 • 한국에 오기 전 삶 |
| 영아 양육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발달적 현황 • 발달적 자극 촉진 • 반응적 상호작용 • 사회적 정보 • 가족적 정보 |
| 영아 부모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의 어려움 • 개인적(언어, 문화, 대인관계) 어려움 |
| 지원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지원요구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

질문지를 작성한 후 면담 조건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문화 어머니 1명과 예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후 질문내용과 면담 진행방식에 대해 연구자들과 보육전문가와 논의하였고, 질문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다문화 어머니들의 언어 이해력에 따라 질문의 난이도와 방식을 조금씩 바꾸었다.

3.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 가운데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으며 0~36개월 이내의 다문화 영아 가정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로 어린이집 교사가 먼저 다문화 어머니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1) 다문화 가정 어머니 중, 2)자녀가 0-36개월의 영아이고, 3) 영아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4) 어머니의 언어수준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언어수준을 정하기 위해, 5)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3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1)에서 5)까지의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면담 진행을 위한 초기 상담 과정에서 언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드러나 재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대상을 선정하였고, 이 기간이 연구에서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개별면담 진행

면담 요청에 응한 다문화 가정 영아의 어머니 7명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면담하기 전에 서면으로 질문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질적인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을 요청한 7명의 어머니들과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각 1회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7명의 다문화 어머니들과 사전에 약속을 정해서 일상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면담을 시행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면담 정보

| 사례 | 일자 | 시간 | 장소 |
|----|-----------|---------------------|----------|
| A | 6월 6일(화) | 10:00 ~ 11:00 (60분) | 어린이집 교실 |
| B | 6월 26일(월) | 10:00 ~ 11:00 (60분) | 카페 |
| C | 7월 4일(화) | 10:00 ~ 11:10 (60분) | 카페 |
| D | 7월 22일(토) | 10:00 ~ 11:20 (80분) | 다문화센터 교실 |
| E | 8월 12일(토) | 9:30 ~ 10:40 (70분) | 다문화센터 교실 |
| F | 9월 16일(토) | 11:00 ~ 12:10 (70분) | 카페 |
| G | 9월 22일(금) | 10:00 ~ 11:00 (60분) | 다문화센터 교실 |

개별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80분 정도였고, 면담 할 때 면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면담 결과에 대한 익명을 보장하였으며 면담의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되었다. 면담 중 면담질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언어로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으나 어려운 단어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담 대상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단어나 문장을 풀이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시로 내용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혹은 대답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질문하는 등 질문 과정에서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대답 내용을 반복해 주고 확인하는 명확화 과정을 거쳤다.

3) 자료 전사 및 분석

면담을 통하여 녹음된 모든 자료는 2017년 6월에서 2017년 10월에 걸쳐서 전사본(transcripts)으로 작성하였으며 전사본은 각 참여자마다 별도로 작성하여 총 7개가 작성되었다. 전사 작업이 끝난 후 면담 참여자의 발음 문제로 잘못 전사된 곳이 없는지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며 각 전사본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최종 7개의 전사본으로 분량은 A4용지 121쪽이었다.

개인별로 전사된 자료는 면담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연속적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이라는 질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부호화되었다(Lincoln & Guba,

1985). 먼저 7개의 전사본 중 면담 내용이 가장 많은 1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자가 전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부호화한 후, 연구자 2인과 보육전문가가 함께 모여 서로 부호화된 과정에서 차이점을 논의하고 부호 간 조정과정을 거쳐 첫 번째 부호집(codebook)을 작성하였다.

첫 번째 부호집에 나열된 부호를 이용하여 다른 두 번째 전사본을 부호화하면서 새로이 생성된 부호는 추가하고 기존의 부호들은 합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두 번째 부호집을 작성하였다. 모든 부호집은 부호(codes)를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각 부호 옆에는 그 부호의 정의 및 그 부호를 잘 예시해 줄 수 있는 인용문(quotes)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약 10주 동안 7개의 전사본을 모두 부호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면담 시에 피면담자인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확인하는 명확화 과정을 거쳤고, 전사 과정에서도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전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둘째, 모든 면담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2인과 보육 전문가, 총 3명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단일 관점에 의한 분석에 비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셋째, 추후 확인 면담(member check)을 통해 분석의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만한지에 대한 면담 참여자들의 반응을 구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어린이집 재원 영아를 양육 중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현황과 어려움, 지원 요구를 알아보고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 주제와 12개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과 서술에서 가능하면 직접 인용문을 제시하였으나, 응답이 단문인 경우 설명으로 대치하기도 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A등의 알파벳은 면담자(표 1. 참조)를 표기하고, 1:22는 전사본 1쪽의 22줄을 나타낸다. 직접 인용문 마다 면담 출처를 표시하고 면담일시도 기록하였다. 면담 내용은 표 4와 같고,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계는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 면담의 주제와 하위주제

| 범주 | 하위주제 | 주요내용 |
|--------------------------|---|---|
| 다문화 가정의 성립: 결혼과 자녀 출산 | • 결혼과 한국에 대한 준비 미비 • 한국 적응 이전 임신과 출산 | - 한국에 대한 지식 없이 결혼함 - 한국어 배우기 부족 - 한국 문화 적응 전 임신과 출산 |
| 다문화 가정 영아의 발달 및 양육 환경 특성 | • 가정 내 놀잇감과 놀이지도 | - 경제적 수준에 따른 놀잇감 차이 - 경제적 수준에 따른 놀이 방법 차이 |

표 4. 계속

| 범주 | 하위주제 | 주요내용 |
|---------------------------|------------------------|--|
|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영아 양육 관련 어려움 | • 가정 내 언어지도 | - 이중 언어 사용 - 책읽어주기 방법을 주로 사용 - 영아의 언어 발달지연 |
| | • 주요 지원 체계 | - 다문화 센터 방문교사지원 - 어린이집을 통한 영아 발달 및 정보 지원 |
| | • 영아 양육의 어려움 | - 영아기 발달 지식 부족으로 적절한 반응 제공하지 못함 - 어머니 편중 양육 부담감 높음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시댁과의 양육 갈등 |
| | • 어머니 언어 능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 - 자녀 교육 정보 습득 한계 - 남편과 대화 부재로 갈등 관계 - 제한된 대인 관계로 다양한 정보 습득 실패 |
|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영아 양육 관련 지원요구 | • 어머니의 정서 심리적 어려움 | -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경험 |
| | • 가정 경제의 어려움 | - 남편의 외벌이로 인한 소득이 낮음 |
| | • 영아에 대한 지원 요구 | - 개별적인 영아 발달 촉진 양육 지원 - 개별적인 전문가 영아 언어지도 - 놀잇감, 동화책 등의 지원 - 영아 이외의 형제자매에 대한 학습지도 지원 |
| | • 어머니에 대한 지원 요구 | - 개별적 언어지원 - 언어 능력 강화를 통한 취업지원 |
| | • 가족에 대한 지원 요구 | - 아버지 양육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이해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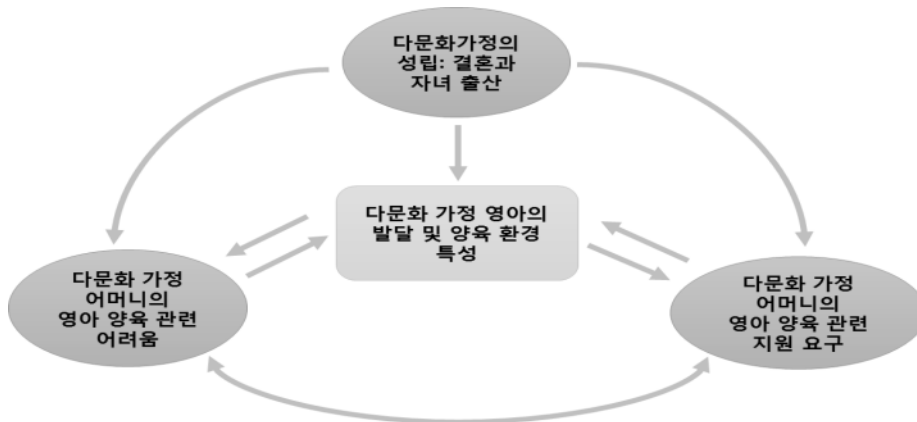


그림 1.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계

1. 다문화 가정의 성립: 결혼과 자녀 출산

1) 결혼과 한국에 대한 준비 미비

첫째, 결혼 전 남편을 소개 받은 어머니들은 드라마, 음악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

고, 한국 이미지는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동일한 이미지로 한국에 오고 싶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 아니고 한국을. 한국에서 한 번 살아 보고 싶고. 아 로맨스가 좋아가지고, (중략) 한국 드라마 다 그렇잖아요(C 2:40~3:1, 2017.7.4).

둘째, 다문화 어머니는 결혼 전에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적었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에 대해서 A 어머니는 남편이 중국말을 사용하여 배울 기회가 없었고 B, F 어머니는 간단한 인사는 남편에게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2) 한국 적응 이전에 임신과 출산

다문화 어머니들은 한국 음식, 문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하였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한국문화 정보가 없어 고립되었다고 하였다.

애기 가지고 있고, 어떤 몸도 상태도 안 좋아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고, 말해도 못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뭐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나가고 남편도 직장 다녀야 해 ~중략~ 뭐 병원가거나 은행가거나 뭐 어디가자도, 마트 가는 것도 남편 계속 붙어 있었어. 뭐 남편도 힘들고 저도 마음적인 것도 힘들었어요(A 2:15~21, 2017.6.6).

2. 다문화 가정 영아의 발달 및 양육 환경 특성

1) 가정 내 놀잇감과 놀이지도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영아를 위한 놀잇감 제공에서 그리고 영아의 놀이방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경우 영아의 놀잇감, 책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고, 영아가 원하는 장난감을 자주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장난감은 자동차, 책, 책도 많아요. 애기도 책을 좋아해 가지고, 책 많아요. 나머지 거의 다 어린이집에서 봤던 장난감들 있어요(C 5:22~23, 2017.7.4).

보통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동차 좋아해서 자동차 제일 많아요. 네 자동차 제일 많아요. 자동차하고, 똥가르미(똥이) 똥가르미(똥이) 것은 우리 아기 좋아해서 (E 7:24~25, 2017.8.12).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은 영아 놀잇감의 종류, 수량이 미비하였으며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가정보다 놀잇감, 책 등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근데 몇 가지 밖에 없어. 4가지 ~중략~ 블락(블록), 그거 레고, 레고 어 봉고 사준 거, 교회에서

준거 2가지. 그리고 할아버지. 지난주만 주셨어요(F 6:21~24, 2017.9.16).

둘째,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영아들은 가정에서 책 읽기, 노래 부르기, 레고 놀이 등, 영아가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졌으며 놀잇감을 가지고 어머니와 공감하며 놀이한다고 응답하였다.

간당(간단)한 책 읽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하고 그런 거는 또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요(A 16:31, 2017.6.6).

블록 나 만들어요(웃음). 나 “엄마해요. 엄마해요” 보면서 이렇게(구성물을 보여줘요)(B 7:1, 2017.6.26).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영아는 게임하기, 텔레비전 보기 등 한 가지 놀이로 혼자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보통 집에서 음 텔레비전 안 보면 좀 우리 얘기 마음 답답해요. 잠 혼자 잘 안 놀아 밖에 가고 싶어 ~중략~ 근데 집에서 텔레비전 없으면 안돼요. 개(얘기) 막(텔레비전) 열어줘요(틀어줘요)(E 10:35~39, 2017.8.12).

뭐 색칠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는 거 블록, 뭐 레고 아니 레고 아니고 젠가 이렇게 빼는 거. 제가 영어 강사 갈 때 그 카드놀이, 우노그런 거 있고, 공 찢고만 거 할아버지 3가지잖아요. 공 봉다리 엄청 많아 내가 나가니깐 그거 갖고 (혼자)노는 거야(F 7:2~5, 2017.9.16).

2) 가정 내 언어 지도

첫째, 면담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은 자녀와 대화 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어머니의 모국어도 가르치며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의는 한국말 많이 사용해요 저는. 아이한테 근데 요새는 베트남 말 가르쳐 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끔도 써요. 베트남 말. 뭐 단어 이런 거(C 5:36~37, 2017.7.4).

두 개(한국말, 캄보디아어) 다 사용해요. 그런데, 00이 아빠는 한국말 사용했잖아요. 제 친정엄마는 캄보디아 말, 저는 두 개 사용하고(G 7:9~10, 2017.9.22).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할 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가 엄마의 한정된 언어능력으로 인해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을 걱정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려움 있으면 마음이 아프거나. 영어로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엄마가 예에 데데 몰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뭐야 엄마 한국말 모르잖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사용하고, 애기들도 배우고, 이렇게(D 20:13~15, 2017.7.22).

저 지금 한국말 잘 못해서 그래서 애기 가르쳐주면, 애기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말 조금 가르쳐요. 수빈아 이리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수빈아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무슨 잘하면 가르쳐요 근데, 어떤, 어떤 것을 잘못해서 베트남어 조금 가르치고 안 가르쳐요(E 8:39~9:2, 2017.8.12).

둘째, 다문화 어머니는 주로 영아들에게 한국어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서툰 한국어지만 자주 읽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있으며 바쁜 직장 생활과 가사 일로 가끔 책을 읽어준다고 응답하였다.

책은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그리고 낮에도 집에 있을 때, 아주 가끔 매일 매일 아니에요(F 10:18, 2017.9.16).

셋째, 한국말이 미숙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영아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며, 자녀가 36개월이지만 영아 초기에 나타나는 울음이나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말 아직 안했어요. 말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우르(우유) 우르(우유) 좋아 해서, 그래 우유 먹고 싶으면 지금 젓병 찾아요. 젓병 어디쯤 조금 주방에서 젓병 놓는 곳에 그래서 먹고 싶으면 지금 주방에서 잡아 당겨요. 근데 나 그때 우르(우유)줘요(E 8:27~29, 2017.8.12).

(언어) 못해요. 음 그냥 울어 뭐 하고 싶으면 말 표현 못해가지고, 울어(F 8:22, 2017.9.16).

3) 주요 지원 체계

첫째, 다문화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문화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다문화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문교사를 통해서 양육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아 발달에 필요한 이유식, 책, 음식, 올바른 양육 방식 등 어머니가 실생활에서의 필요한 내용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다.

선생님이 자주 얘기해요. 애기 그 이유식 어떻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키워요. 그 책 어떻게 봐요. 그 어떤 책 봐요. 다 이렇게 했어요(B 6:16~17, 2017.6.26).

집에서 와서 방문 방문교사 받았어요. 받고, ~중략~ 애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 애 밥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고(G 7:30~33, 2017.9.22).

그러나 다문화 센터의 방문교사의 교육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교육기간과 시간도 짧아 영아

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되는 양육 정보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고도 하였다.

근데, 시간이 좀 짧을 짧아요. 10분만 10분하고. 6개월만 했어요(D 15:33, 2017.7.22).

둘째, 대부분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영아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친절함, 잘 가르쳐 준다 등의 전체적인 어린이집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영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발달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활동 많이 하니깐. 활동 많이 해요 ~중략~ 어떤 활동은 뭐 갖고 뭐 갖고, 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좋아. 체육 선생님도 좋아(F 9:31~33, 2017.9.16).

네 좀 달라졌어요. 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음 어 그거 뭐야. 아~ 자동차만 했어요. 근데, 어린이집 모양 음. 모양 놀잇감 많이 있어요. 다양한 장난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자동차만 놀아 아니고, 이거 조금 놀아 이거 조금 놀아(E 11:41~12:2, 2017.8.12).

(어린이집) 보내기 후 보내기 전은 분유 먹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음. 그냥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하고 보내기 후에는 또 집에 와서 인사하고 잘 하고, 밥도 잘 먹고, 분유 안 먹고, 우유도 잘 먹어요(G 8:37~39, 2017.9.22).

참고로, 영아 어린이집 입소 선택은 가까운 지인들의 정보를 통해 선택하였다. 참여자 어머니 들은 어린이집에 입소 선택기준과 정보에 대해 가까운 친인척이나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어린이집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주로 지인의 소개나 집에서 가 까워서 입소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 친구. 친구 분이 예전 애들 어린이집 다녀서(A 5:14, 2017.6.6).

지금 동 옆에. 우리 집 우리 집 동 옆에 있어요(어린이집) 항상 갔다 왔다 보고, 지금 그래서 물어봤어요 (E 11:11~12, 2017.8.12).

영아들의 언어 수준을 높이고, 기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 어린이집에 일찍 보냈다고 하였다.

그 때 아니 그거는 우리 신랑이 계속 보내라고. 왜냐하면 조금 온지 지금 1년 넘었는데 계속 집 애기 보고 집에 있으니까 어쨌든, 애기 나가면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좋고, 다 말도 빨리 배우니까, 우리 신랑 은 돌 지나면 보내라고, 그래서 4월부터 보냈어요(C 7:25~27, 2017.7.4).

말도 못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분유 분유만 먹고, 분유도 그 때도 떼어야 돼요 선생님. 18개월 되는데. 그래서 못하니까 마음 아파서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G 8:22~24, 2017.9.22).

3.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영아 양육 관련 어려움

1) 영아 양육의 어려움

첫째, 영아기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영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 어머니는 영아 발달 지식의 부족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적절한 반응이 어렵고 서툴게 대응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냥 울고, 그냥 분유 줬는데도 안 받고, 하고 그냥 애기 울 때는 약간 배고프거나 오줌 싸거나 똥 싸거나 아플 때나 그런 걸 확인했는데도 그냥 또 울고(G 14:36~37, 2017.9.22).

아이들 뭐고야. 방법이야 정보야 어디서 뭐고 (중략) 뭐하는지 모르고 그런 거 다 잘 몰라요(A 12:40~12:42, 2017.6.6).

둘째, 양육 환경과 문화 차이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자녀의 양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더 비중 있게 보고 편중되어 있어 문화가 다른 다문화 어머니들에게는 양육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다.

안 봐요.(웃음) 퇴근해서 남편은 8시나 9시에 오니깐 퇴근하잖아요. 8시, 9시쯤, 근데 애들은 자고 있고, 안 봐. 많이(D 7:1~2, 2017.7.22).

(부탁하면) 어머니가 표정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그 때부터 남 부탁하면 좀 부담스러울까봐 그래서 부탁 안했거든요(C 9:11~12, 2017.7.4).

셋째, 남편과 시댁식구와의 양육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문화적 갈등의 차이는 시댁 식구와의 양육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시댁과의 크고 작은 양육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통은 그 애기 키우는 방식, 어머니는 막 그 아무 때나 아무것도 다 주셔요. 애기는 상관없이. 그, 그 박카스 같은 거 어른 거잖아요. 다 먹여요. 한약도 다 주시고, 애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다 주시고, 커피도 다 막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어머니가 담배 피우세요. ~중략~ 어머니가 바로 그 우리 그 창문 앞에서 담배 피우세요. 그래서 막 연기 들어와요 우리 집에 저는 말 못해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서운하실까봐(C 10:34~40, 2017.7.4).

2) 어머니의 언어 능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첫째,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자녀들의 교육 정보에 한계가 있다. 문해 능력의 미비로 자녀 양육 정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정보 부족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정 통신문 받잖아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사전 찾아서 그냥 아~ 알아요. 그 뜻이, 사전 안 찾으면 모르잖아요(B 13:15~16, 2017.6.26).

둘째, 다문화 어머니들에 지원해야 할 남편이 어머니의 미숙한 언어로 인해 갈등이 있으며 대화가 단절 되어 어머니의 한국 생활 적응에 방해가 되고 있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하고 남편하고도 많이 싸워요. 언어 설명 못하니깐. 남편도 자기 말도 알아 듣지 몰라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고(F 6:8~9, 2017.9.16).

셋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주변의 친인척들로 한정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다문화 센터에서 공부를 하며 대인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한정된 대인관계로, 정보 습득이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하고, 한국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통화 못해요. 못해서. 생활 생활도 힘들어요(E 16:7~8, 2017.8.12).

저는 여기 와서, 외국인 친구 밖에 없잖아요. 하고 한국친구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 생각. 적응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애기도, 적응 못할 것 같아요(G 12:26~27, 2017.9.22).

3) 어머니의 정서 심리적 어려움

다문화 어머니들은 고립된 생활로 우울증에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남편을 믿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다문화 어머니들은 가족과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외로움과 혼자 양육의 어려움으로 어머니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며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 아들 낳을 때 그냥 나 밥 먹고 조금 쉬고, 근데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 밤에도 못자요. 자꾸 나 그냥 저 별로 없어요. 나 3개월 때 그냥 끝났어요. 나 밤에도 분유타고 뭐 이제 그냥 어휴~ 힘들어. 근데 남편도 별로 안 도와줘요. 한국남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두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그래서 우울증 걸렸어요(B 5:23~27, 2017.6.26).

제가 더 아팠어. 한 38kg로 이제 점 점 점 점 계속. 37kg으로 내려가고. 갈라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 나라 돌아갈래요.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맨날 안방에서 따뜻한 방에서 계속 이렇게(쭈그리는 행동 보임) 밤이 되면 울어. 그래서 아버지 너 어디 아프냐? 아 제 몸 아파가지고요. 못 살 것 같애. 이제 필리핀 갈래요. 그래? 병원 가봐. 병원 주사 링거 맞아도, 한 이틀 만 지나면 또 그래. 여기가(마음을 가리킴) 아파 나 갑상선 앓았어요(F 11:13~18, 2017.9.16).

4) 가정 경제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수입원은 남편의 외벌이 소득이 주였고, 경제상황은 대체로 차상위

계층으로 어려운 수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직업으로 인한 별거로 양육지원이 없어서 더욱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신랑 혼자 돈 벌어서, 그래서 지금 집에 4명 다 있어요. 좀 생활비 하고, 애기 나중에 어 학교 갈 때에 피뎌(교육)비도 학원비도, 좀 전 너무 어려워요. 네 걱정해요(E 15:23~25, 2017.8.12).

(남편 일) 많이 안 해요. 일 할 때만 있지요.(일용직), 일 안하면 건설회사는 (중략) 그냥 돈이 없어요(G 16:2~4, 2017.9.22).

우리 남편 회사 너무 멀어서, 집에 항상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와요(E 3:40, 2017.8.12).

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영아 양육 관련 지원요구

1) 영아에 대한 지원 요구

첫째, 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영아 발달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애기 지금 키우기 좀 어려워서, (중략) 한 단(한 단계)도 더, 더 도와주면 더 좋아요. (중략) 선생님 제대 (집)에서 직접 가르쳐주면 좋아요. 아기한테 (중략) 직접 우리 집 오면 좋아요. (E 13:8~11, 2017.8.12).

둘째, 부모와 주고받는 언어 상호작용 보다는 언어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길 원하였다

선생님들이 지금 무슨 손잡고 이제 수빈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같이, 같이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음 해주면 좋아해요(E 12:16~17, 2017.8.12).

셋째, 영아 발달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령에 맞는 놀잇감, 책 등의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길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어 동화책 뿐 아니라 다국적 동화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방금 나 여기(질문지) 적었잖아. (질문지 넘기면서) 여기 책. 제가 이거 지금 나 중국 책 너무 고 애들한테 읽고(읽어주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옛날에 서서(써서) 그 사도 뭐 어떻게 가져 오는지. 그런 것도 구매하고, 왜냐하면 책도 한권은 안 되잖아. 한 권 하루 읽고 다음 날 또 다시(다른 거) 봐야 하고 ~중략~ 나 책 지금 나 한국어 한국 책하고 중국 책을 다 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책도 애들이나 뭐야, 책 무슨 책이나 해야 하는지, 무슨 책 좋아하는지 거 필수 책도 있잖아요. 그거 해주면 좋겠다(A 12:5~8, 2017.6.6).

넷째, 다문화 가정에 어린이집 재원 영아 이외에 형제나 자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학업

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컸다. 그 원인은 학업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자녀들은 한국어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그로 인해 형제 자녀에 대해 개별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하며, 개별적인 학습지원은 한국말에 의미를 알고 학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습지원자의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아 그거 숙제나 어떻게 하는지 그거. 어제 나 첫째가 수학 있잖아요. 근데 수학 너무 길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나 나 못해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인터넷에서 영어하고, 어떻게 하는지 풀이하는 거 그렇게 했어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애기도 있기는데(있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요(D 11:8~11, 2017.7.22).

저는 다문화 엄마이잖아요. 한국 엄마처럼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회, 문제, 역사 같은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어~ 약간 조금 어려워 (중략) 집에 와서 학습하잖아요. 숙제, 엄마 숙제 해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모르는데, 그런 거죠(G 12:11~16, 2017.9.22).

2) 어머니에 대한 지원 요구

첫째, 다문화 어머니들에게 한국말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언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 교육을 시키는 거는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배우는 거는 한 달 두 달이나 그 정도 안대요. 근데 매일 시간이 지나서 뭐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서 한국말 점점 느릴(늘릴)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 다 나이가 있어서 배우기도 느려요(A 16:6~9, 2017.6.6).

추가 의견으로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 어머니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다문화 어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라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어를 배움으로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어머니로써 힘이 생긴다고 응답하였다.

엄마 먼저. 힘이 생겨야 돼 공부 안하면 힘이 없어요. 옛날도 내가 계속 일하잖아요. 공부 잠깐 하고 일하고, 근데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많이 싸워요. 네네. 지금은 공부 하니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뭐, 하고 싶은 거 잘 하고, 이렇게 근데 공부 안하면 안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D 23:21~24, 2017.7.22).

둘째,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언어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문화 어머니들에게 직업을 구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라에서. 직업 관리 구하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직업 구하는 거 제가(D 22:5, 2017.7.22).

3) 가족에 대한 지원 요구

첫째, 가족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육 지원 프로그램

램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남편의 양육 도움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 아빠 프로그램 필요해요. 아들 아빠 사랑 필요해요. 근데 같이 안 있으면 00는 아빠 아빠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나중에 크면. 그래서 그 가족끼리 가족끼리 같이 놀아야지. 자꾸 주차장 형님 그 같이 일을 하는 친구, 놀면 그 뭐 재미있어요? 나 진짜 생각할수록 나 재미없어. 근데 그 사람 재미있어. 그니깐 우리 같이 같이 놀면 재미없어. 자꾸 나보고 안 돼! 안 돼!하고 그리고 얘기랑 같이 놀으면 좋아요 그냥 얘기 귀여우잖아요(귀엽잖아요). 근데 왜 재미없어요. 진짜(B 11:12~16, 2017.6.26).

둘째, 영아 어머니들은 다문화 가정의 남편, 가족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 간의 문화 차이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생각에는 그 다문화 가족(다문화가족 이해 교육)같은 거 얘기하고,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음. 양쪽의 그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C 12:15~16, 2017.7.4).

가족, 가족 뭐 2박 3일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교육 있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F 13:9~10, 2017.9.1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재원 영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영아 양육 환경의 특성,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향후 사회에서 실행해야 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결혼 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한국어 배우기 등이 부족했으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둘째, 영아 행동에 대한 놀이 상호작용과 언어적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문화센터와 어린이집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셋째, 다문화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 정보 부족과 어머니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시댁과의 양육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한 영아 양육의 어려움과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정보습득과 대인관계 결여, 한국 사회에의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 심리적 힘들. 남편의 외벌이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넷째,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어머니들은 영아와 부모에 대한 개별적인 양육지도와 지원, 어머니에 대한 언어와 취업 지원 강화, 아버지에 대한 자녀 양육 교육과 가족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성립의 시작인 결혼은 동일한 나라이더라도 다른 문화의 결합이니만치 상대방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전제로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국가적 종교적으로 다른

다문화 배우자와의 결혼 과정은 더 철저한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포함하는 준비 과정과 더 길고 다양한 적응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문화 배우자와의 결혼에 대한 준비 없이 결혼한 이민자 여성들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박윤경, 2010;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어머니들도 다른 문화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한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결혼 생활에의 적응을 초기부터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과 달리, 법무부는 2014년 4월 소득기준,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해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일정 한국어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서 2015년 5월 현재 외국인 결혼 이민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연합뉴스, 2015.05.29.). 즉, 한국 적응 준비도가 높은 사람만 받아들이다가 보니 국내 결혼 대기자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혼 입국에서의 기준 강화보다는 입국 신청을 한 경우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결혼 이전에 지원을 강화하고, 입국하는 경우 다문화지원센터에 자동 등록되어 추후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원과 개별적인 사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김기홍, 2012)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가정 영아 발달 및 양육 환경면에서,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영아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 해주기에 미숙하였으며, 다문화 어머니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묵인하며,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방법이나 영아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에 기인한다(성미영 등, 2010; 조미영, 배지희, 2011). 이러한 부모의 영아 발달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영아 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달 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아 놀잇감, 책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미향, 2008). 또한, 영아의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영아는 낮은 언어 수준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반응 문제는 어머니의 낮은 언어 능력에 근거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시간과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 어머니의 한국어 부족과 이해 부족은 자녀에게 언어적 자극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다(조미영, 배지희, 2011).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국어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으며 일반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며, 낮은 정서적 교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금주, 2008). 그러나 다문화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면서 어린이집을 통해 물리적 환경에서 놀이하는 방법을 익히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며, 언어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얻고 있었다(양시내 등, 2013). 어린이집과 같은 양육지원 기관에서의 지원이 발달 초기인 영아기 때부터 시작되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관련 조기 정보 제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은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음이 보고(권희연, 이미숙, 전병운, 2010)되었으며, 다문화 어머니는 문화, 언어차이로 영아를 이해하고 언어적으로 촉진해 주기에 환경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어머니들은 영아 시기 개별적인 양육지도를 요구하였다. 다문화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정보와 한국어 부족으로 영아시기에 필요한 양육지도를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영아 양육지도가 필요하며 자녀에 대한 연령별 발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가정과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신규, 이성희, 2015). 가정과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가정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로 인해 영아에게 나타나는 언어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이후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혜정, 2015).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선별(screening)은 발달지연 위험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이러한 과정을 통한 부모교육 및 상담 목적을 지니며 성장발달 선별은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모든 영유아에 대해 2세 이전의 평가가 권장되고 있으므로, 2세 이전의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족에게 있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박신규, 이성희, 2015). 또한 다문화가족과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요구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다문화가족의 개인별, 유형별 요구 분석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개별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16).

넷째, 다문화어머니들은 남편의 지원 없이 어머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영, 배지희, 2011). 즉, 다문화 어머니들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한경남, 2012). 또한 다문화 어머니들은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의 양육 차이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 양육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다문화 어머니들은 친정어머니에게서 배운 양육 방식을 사용하였고, 다문화 어머니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부모를 통해 경험한 양육 방식에 따라 영아를 양육하고자 한다고 한다(권경숙, 봉진영, 2013). 이 양육 방식은 한국인인 가족들과의 교육 방침과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키고(양시내 등, 2013), 가족 구성원 간의 자녀 양육관이나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송미경 등, 2008)하는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양육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센터를 통한 전문가의 개별적인 양육지도와 다문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배우자들에게도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든든한 정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강선자, 손수민, 2011). 남편의 교육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관계, 가족 간의 갈등 특히 남편과의 갈등관리 등의 가족 즉, 남편과 시부모의 교육(한경남, 2012)과 한국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상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족 양육지원이 필요하다(양시내 등, 2013).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적 관심과 개입이 요구되어 진다(여성가족부, 2016).

다섯째, 다문화 어머니들은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의미가 있는 글자나 문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오혜정, 2015). 한국인 어머니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얻기 힘든 상황

에 처해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권희연 등, 2010). 정보가 부족했던 한국 초기 다문화 어머니들은 언어 부족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였으며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언어적 미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제한하였다(박미경, 2007). 즉, 한국어 미숙은 가족들 뿐 아니라 한국 어머니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한계를 초래하였다(홍영숙, 2007).

다문화가족간의 네트워크 확대 및 초기 적응과정에서 원활한 적응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여성가족부, 2016)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은 다문화 가정 양육 지원기관과 관계를 맺어 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에 대해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고(노미향, 2008; 조미영, 배지희, 2011),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높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며(최은영, 2015),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살고 있고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한국 엄마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권경숙, 봉진영, 20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활동은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통로이면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가족봉사단 활동 활성화, 자조 모임 형성 및 리더 양성 등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의 적극적 지원(보건복지부, 2008; 여성가족부, 2016)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남편의 외벌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요구하였다(조미영, 배지희, 2011).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부분 남편이 외벌이를 하였고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은 단순 노동자가 많았으며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정이면서 모두가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주된 수입이 남편의 근로소득인데 남편들이 직업이 단순생산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음(유영은, 2006)을 나타내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 어머니들 중 영아의 놀잇감, 책 등 물리적 환경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가정을 확인했을 때 공통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놀잇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녀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 자녀들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인 놀잇감의 제공과 교구 및 교재 등의 구비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노미향, 2008; 조미영, 배지희, 2011).

다문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문화 어머니들은 자녀가 좀 더 크고, 한국어를 더 잘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스스로 찾기에 어려울 것 같아 국가에서 개별적인 특성과 가정환경에 따라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 2016).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해 다문화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2011).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거나 전문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로 생애 초기인 영아기 자녀 양육과 관련된 현황과 어려움 지원 요구를 제시한 본 연구는 그 나름의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재원 영아 다문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표본추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다문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3급, 초등학교 3학년 언어 수준을 가진 다문화 어머니들에게 면담을 실시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는 적었으나 의미 있는 어려운 단어나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되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지만 개인 별로 이해와 표현의 폭의 한계가 있었다. 셋째, 소수의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문헌

- 강선자, 손수민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4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61-188.
- 곽금주 (2008. 1).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서울.
- 곽금주 (2002). **아동 심리 평가와 검사**. 서울: 학지사.
- 교육부 (2014). **2012-2013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구영산,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2014).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교육지원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2), 1069-1082. doi:10.5392/JKCA.2014.14.12.1069
- 권경숙, 봉진영 (2013).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도사의 실제적인 역할과 어려움에 관한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33(3), 59-81. doi:10.18023/kjece.2013.33.3.003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doi:10.20970/kasw.2009.61.2.001
- 권희연, 이미숙, 전병운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문헌 분석. **지체중복장애연구**, 53(4), 283-306. doi:10.20971/kcpmd.2010.53.4.283
- 김기홍 (2012). 한·일 다문화가정 장애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일본인 어머니들의 인식 및 지원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79-111. doi:10.21075/kacs.2012.14.3.79
- 김선희 (2016). 다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 이현정 (2016).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어휘력과 문해능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학지** **21**, **7(6)**, 263-279. doi:10.22143/HSS21.7.6.16
- 김정민, 김지현, 정현심 (2011).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32(3)**, 1-17. doi:10.5723/KJCS.2011.32.3.1
- 김혜린, 한선경, 김영태 (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수교육**, **13(3)**, 371-385.
- 김희태, 권영덕 (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노미향 (2008).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규, 이성희 (2015).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양육환경과 발달 상태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다문화 영유아교육지원방안을 위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159-187.
- 박윤경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지능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이은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7(3)**, 527-547.
- 보건복지부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보육통계(2014.12.31. 기준)**.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13호.
- 성미영, 김정현, 박석준, 정현심, 권윤정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가정문해환경. **아동교육**, **19(4)**, 33-47.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시내, 김우영, 김영옥 (2013).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71-94.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합뉴스 (2015.05.29.). **비자 심사 강화로 외국인 며느리 7개월째 감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20150528187700371.HTML?input=1179m> 2015년 5월 29일 인출
- 이민주 (2015).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 증진을 위한 가족문해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95**, 81-103.
-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36, 239-258.

- 이선미,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소희, 박영례, 김애립, 박성은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9**(4), 805-829. doi:10.13049/kfwa.2014.19.4.805
- 임순화, 박선희 (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 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오혜정 (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215-237. doi:10.21075/kacsn.2015.17.1.215
- 유영은 (2006).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성, 하지영, 서소정 (2007). 장애위험군에 처한 영아 조기선별진단도구의 한국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1), 265-287. doi:10.21075/kacsn.2007.9.1.265
- 전혜정, 민성혜, 신혜원 (2009). **다문화 가정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 효과분석**.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장수지, 조을순, 정주희, 윤지은, 박보미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민감성이 12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6), 335-352.
- 정민자, 윤선아 (2014). 다문화가정의 모의 특성과 가정환경변인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4**, 259-282.
- 정정희, 정민영, 김민정, 허경아, 홍희주 (2010).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3-44.
- 조미영, 배지희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427-453. doi:10.18023/kjece.2011.31.6.019
- 조영철, 윤혜영, 최민지 (2013).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참여 멘토와 멘티의 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2**(3), 25-42.
- 조윤경 (2015). 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의 장애 유아 어머니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5**(3), 127-155.
-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55-268.
- 최은영 (2015).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 보육정책 현황 및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5**(2), 161-180.
- 한경남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71-190.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행정안전부 (2016). **(한글분석자료)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서울: 행정안전부.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Seidman, I. (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박혜준, 이승연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06).

논문투고: 18.04.24

수정원고접수: 18.07.13

최종게재결정: 18.07.29